

# 월가, ESG 투자 열기 식어...올해 투자금 18조원 인출

(환경, 사회, 지배구조)



## 수익률 저조·정치적 논란 여파 펀드, 숫자 줄고 이름 바꾸기도

미국 월가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월가의 금융 기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sustainable)’ 투자 러시를 이뤘으나 이제는 투자수익률 저조 등을 이유로 조용히 투자금을 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해 들어 ESG 관련 펀드에서 투자금 인출액이 140억 달러(약 18조15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고금리 사태로 인해 청정에너지 관련 종목 주가가 하락했고 ESG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해 기업들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ESG는 기업활동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소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말한다.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목받으면서 월가의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ESG를 투자전략에 접목했다. 그러나 ESG가 최근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ESG의 개념이 인종·젠더·지역 등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른바 ‘위크 자본주의(Woke Capitalism)’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위크 자본주의는 ESG 투자 또는 경영에 적극적인 금융인과 기업인이 깨어 있

는 적하다고 비꼬는 말이다. 글로벌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의 ESG 기준을 충족해 지속가능한 펀드로 분류되는 종목이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올 3분기에 모닝스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펀드가 신규로 편입된 펀드보다 많았다. 얼마 전까지 펀드 명칭에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을 추가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으나 이제는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트퍼드(Hartford) 펀드는 2021년에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을 붙여 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지난해에 투자 목표 수익 달성에 실패한 뒤 최근에 펀드 이름을 바꾸고 전통적인 투자전략으로 선회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들어 ESG 권한을 포기한 펀드가 최소 5개에 달하고

32개 ‘지속가능한’ 펀드가 폐쇄됐다. 올해 들어 지속가능한 펀드 자금 인출금이 140억 달러에 달했고 아직 남아있는 펀드는 2990억 달러로 줄었다. WSJ는 “다른 펀드도 대체로 손실을 기록했지만, 기후 관련 펀드 등의 손실 규모가 더 컸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 주자인 공화당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에 블랙록이 ESG 펀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20억 달러의 투자금을 찾아갔다.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켈 맥스틴은 지난해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동참을 선언한 주요 월가 은행과 지방채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텍사스주의 경고 대상 은행은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RBC, 웰스파코, 바클레이스,뱅크 오브아메리카, 피델리티, TD시큐리티

즈 등 8곳이다.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이미 텍사스주 지방채 시장에서 발을 빼고 8개 은행은 올해 텍사스주가 발행한 지방채 510억 달러 중 25%가량을 인수했다. 최근 월가에는 반(反)ESG 펀드가 등장했다. ESG가 최근 정치적 논란과 수익률 문제가 불거지면서 ESG 펀드와 대립하는 펀드가 등장한 것이다. 반 ESG 펀드는 환경·책임·투명경영 개선을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지 않고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투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화당이 집권한 주를 중심으로 37개 주에서 ESG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최소 165건 발의됐다. **국기연 특파원 kuk@**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중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 英 찰스 3세 초청 ‘첫 국민’ 방문 위해 출국

21일 버킹엄궁서 오찬·만찬  
22일 수백 총리와 정상회담  
佛도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전

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23일(이하 현지 시간)까지 머물고 이후 프랑스로 이동해 25일까지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부수석이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게라스 위아

주한 영국대사 대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초청한 첫 국민이다. 20일 오후 런던에 도착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 국민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한 영어 연설이 예정됐다.

22일에는 리시 수낀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국민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은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다. 오는 28일 예정된 엑스포 개최 투표표를 앞두고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F)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통해 부산의 강점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최웅석 기자 rpch@**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부인 김

## 1면에서 계속 은행권, 연내 兆단위 ‘상생금융안’ 발표

김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황제세 논의까지 언급하며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의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 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금융당국 수장이 황제세를 피하는 게 낫다며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최대한 마련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이 원장 역시 “그동안 각 금융회사

별로 상생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황제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행히도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에 8개 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적 역할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한다. 이들 금융지주들은 은행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2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조6000억원)보다 8.9%오 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 1면에서 계속 “내년 2.0% 성장...반도체 수출 15.9% 늘어”

반도체 수출은 DDR5를 비롯해 인공지능(AI)용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필수수요 제품 교체 수요 등으로 -25.6%를 기록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15.9% 증가로 반전이 기대됐다. 내년 정보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과 SSD 수요가 회복 추세이고, 기저효과 또한 작용해 올해 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

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주요 수요 기업으로의 태블릿용 OLED 공급 등으로 전년보다 2.2% 증가가 전망됐다. 올해 반도체 수출 부진 속에서 ‘수출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한 자동차는 전 기차 판매 둔화 영향으로 올해 20%가까운 수출 증가율이 내년 2.0%로 크게 둔화하겠지만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 리더를 위한 종합경제신문 [www.g-enews.com](http://www.g-enews.com)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원** 편집국장 **강현주** 광고국장 **남경진**

법인명 (주)그린미디어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62 서교동 한림빌딩 2층  
구독료 1부당 1500원 / 월 2만4000원 / 1년 28만8000원 대표전화 021323-7474 / 팩스 021325-7474

2010년 5월 21일 창간 2010년 9월 29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70(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쇄처 세계일보제재단



지속성장 가능한  
**천년기업의 비밀**

# 100년 기업을 넘어 1000년 기업의 영속 비밀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 창의력, 융합, 이타심, 공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조차 ‘천년기업’이란 주제를 다룬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경영철학, 조직제도, 필요역량, 조직실행을 통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천년기업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사례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공감 도서출판  
홈페이지 [www.bookdaum.com](http://www.bookdaum.com)  
도서문의 02 3141 2700

지식기부실천 도서출판 지식공감은 모든 발행 도서의 2%를 지식기부실천명목으로 조성하여 책을 필요로 하는 전국 도서관에 기부를 실천합니다. 도서출판 지식공감은 모든 발행 도서의 2% 기부실천을 계속할 것입니다.



**BEST SELLER**